

부활 이후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예수를 초대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앉으셨는데 그 바리사이파 사람은 예수께서 손을 씻는 의식을 치르지 않고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주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걸판을 깨끗이 닦아놓지만 당신들 속에는 착취와 사악이 가득차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 겉을 만드신 분이 안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릇 속에 담긴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당신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박하와 회향과 그밖의 모든 채소에 대해서는 십분의 일을 바치면서 정의를 지키는 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무시해버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먼저 것도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나중 것도 실천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즐겨 찾고 길에 나서면 인사 받기를 좋아하니 말입니다. 당신들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하니 말입니다.」

그러자 율법전문가 한 사람이 나서서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당신들 율법전문가들도 화를 입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견디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워놓고 스스로는 손가락 하나 그 짐에 매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당신들

은 당신네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의 소행에 대한 증인이 되었고 또 그 소행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당신들은 그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가 <나는 그들에게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보내겠고 그들은 그중 몇 사람을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창세 이래 모든 예언자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살해된 즈카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잘 들으시오. 이 세대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 율법전문가들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으니 말입니다. 당신들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못들어 가게 하였습니다」(누가 11 : 35-52)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인생, 그 중에 3년 간의 선교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고초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곤욕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만에 다시 사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당신들은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시오.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당신들과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 나타나 좀 준엄한 견책과 분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따를 것이며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 가지 새로운 언어를 말하며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 우리는 다시 한 번 예수께서 생전에 하시던 일을 되돌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야 할 터인데, 그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제자들에게 명한 것을 지키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전의 예수님의 교훈이 부활하신 후에도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많은 훈계를 했는데 그의 생전에는 별다른 의미를 못 느끼다가 그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훈계를 다시 슬화해 보고 그 참 뜻을 깨닫는다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사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이러한 교훈을 단순히 슬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전파하라고 했을 경우, 그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해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재음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부활 이후라는 전지에서 되돌아보고 생전에 주님께서 겪으신 일을 모두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시 이 땅 위에서 가장 완벽하다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처형당했

고 또 가장 완벽한 율법종교인 유대교에 의해서 고발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고 부음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주의니 바리새주의니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까지 몰아넣은 율법주의와 바리새주의는 과연 어떠한 것이던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식사 초대를 받고 식전에 손을 씻는 의식을 무시했다고 비난받는 데서부터 논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은 율법 전문가와의 논쟁이 계속됩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의 율법을 실천하는 무리이고 율법학자는 그 바리새파 중에서 실천보다 율법의 신학적인 해석, 율법의 적용을 풀이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유대나라가 이방나라의 압정 아래에 있을 때 유대교의 본질인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 중에도 바리새인들이라 하면 민족적인 순수성, 특히 율법생활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민족정신을 고수하는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민족 가운데서 대단히 존경을 받아왔고 이방문화와의 혼합을 절대적으로 배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저주하고 비난한 것은 사실 그들 전부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 극히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극단적으로 율법의 문자를 고수하고 본 정신을 저버리려는 데 대해서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왜 이러한 극단적인 바리새인들을 비난했는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이들이 지나치게 율법생활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 논과 들에서 거두는 곡식과 채소의 십분의 일을 십일조로 바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는 박하와 회향까지도 십일조로 바치라

고 요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23:23)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대해서 십일조를 바치라고 이들이 주장했다고 되어 있으며 예수께서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책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이파 사람들, 당신네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대해서는 십분의 일을 바치라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대단히 중요한 율법은 무시해 버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먼것것도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나중것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눈 먼 인도자들, 파리 한 마리는 건져내고 마시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니 이번에는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항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당신들도 화를 입을 것이다. 당신들도 남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을 지워놓고 자신은 손가락하나 까딱하지 않고 게다가 옛날에 예언자들을 죽인 당신 조상들만 두둔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예언자들이 창세 후부터 오늘까지 흘린 피에 대하여,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지혜가 있는 것 같으면서 사실은 지혜의 열쇠를 치워버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들마저 못들어가게 했다」고 비난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왜 유대인 중의 중추세력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충돌했으며 종국에 가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거나 능숙한 처세를 하려고 했다면 예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고도

적당히 기회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가르치며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온유로써 모든 것을 이해하며 감싸고 지내도 저항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닌 것을 아니라 하지 못하고 옳음을 옳다고 하지 못하는 상태에 몰려 들어갔을 때 심중에서 우리나는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먼저 남에게 도전하거나 말싸움을 시작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2:1-3을 보면 「바리사이와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곧 그들의 위선을 조심하십시오. 감추어 둔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어두운 곳에서 말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이더라도 그것은 지붕 위에서 크게 선포될 것입니다」고 예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심하면서도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하여 「화있을진저—」하고 반박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왜 정의, 자비, 신의 같은 것을 문제삼지 않고, 파리를 건져내 마시면서 낙타를 그대로 삼키느냐? 너희가 말하는 율법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고 있다. 그대들은 법을 가지고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가혹하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정의·자비·신의의 대립을 보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본래 나와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겨집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서는 법이 필요없습니다. 남과 나 사이에서 공동체가 성립이 될 때 비로소 질서 문제가 생겨나고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법이 문제되는 것은 공동체의 질서, 나와 남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입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법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마디 말 속에 있다고 했고, 로마서

13장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라는 말들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해 준 것입니다 .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무엇일까? 성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어떻게 해석되며 우리의 실정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부활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과 율법의 대립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 세상의 법과의 충돌이었습니다. 나와 내 이웃 사이의 관계가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법으로써 인간의 양심을 버리고 무한하게 발전될 수 있는 사랑의 정신을 질식시켜 버리는 이 세상의 힘, 즉 사탄의 권세에 들어있는 법에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란 결국 이러한 때, 이러한 세상의 힘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으며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은 한결같이 그들 자신이 법을 어겼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재수가 없어서 법망에 걸렸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소년수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법을 적용해서 징벌을 가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선도하겠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일수록 법보다는 조그마한 것이나마 친절·관심·사랑의 손길을 뻗어줄 때 그들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 현실이 경제에만 치중하다 보니 인간관계가 점점 무너져가고, 인심이 각박해지며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힐책하셨듯이 정의나 자비 그리고 신의가 날로 땅에 떨어져 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강박해져서 살인 강도 사건이 범상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부조리나 사회의 모순을 모조리 법으로 다스리고 일벌 백계주의로 한다고 해서 해결되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올법을 이기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지만 또한 두려움이 사랑을 내쫓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결핍된 사회는 결국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웃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사랑의 결핍증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로만 바리새주의를 나쁘다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바리새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현대의 바리새인이란 반드시 유대교의 율법만을 준수하는 사람들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의 바리새인이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빛을 갖지 않은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남에게 물질적인 빛을 저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개인적으로 남에게 빛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적으로 남의 나라의 빛을 지고 있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땀 흘려 일해 이 빛을 같이 갖아가야 합니다. 국가적인 외채가 60억불 이상이 된다고 하니 이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채의 일부를 걸머지고 그 원금과 이자를 갖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상의 빛에는 에누리가 없습니다. 처음 빛을 질 때 약속을 그대로 지켜 꼬박꼬박 갚아 나가야 합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 식구를 먹여살리고 있으니 빛을 진 일이 없노라고 시치미를 떼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지불하는 세금으로 또 노동으로 이 외채를 함께 갚아가고 있는 채무자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하여서도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을 잘 키워가면 내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할런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오늘도 저 임금에 허덕

이고 하루 세 끼를 먹기가 힘든 이웃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들에게 사랑을 빚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는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으니 이 세상의 법에 접촉될 일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른지도 모르나, 소리없이 죄없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내 이웃이 있는 동안, 우리들은 이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사실을 부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현재의 바리새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바리새인이란 사랑 대신에 법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들입니다. 썬 만능주의, 즉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 이것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생각하여 인간을 공포로써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지고 있는 부담이나 고통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율법과 복음의 생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입고 있는 것이므로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 6 : 14)

「여러분은 죄의 권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정의의 종이 되었습니다.」(로마 6 : 18)

그리고 나서 7장 18절 이하에서 그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해야 하겠다

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이런 경험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 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지만 내 몸 속에는 내 마음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 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아,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내 줄 것입니까?」(로마 7:18-24)

우리가 과연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정의의 종이 되었는가?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이런 물음으로써 자기를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지난 주에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순간순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과연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죄의 법의 종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사랑과 자비, 그리고 정의와 신의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고난과 역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반성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종이 되겠는가? 아니면 죄의 종이 되겠는가? 이것이 부활 이후에 우리가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빅토르 세르빌리에라는 학자가 말하기를, 기원전 1500년부터 서기 1860년까지 세계 여러 나라가 영구적인 평화를 위하여 약속한 평화조약이 각국 사이에 약 8천건이나 체결되었다고 하는데 이 8천건의 평화조약들이 실로 제 효과를 발휘한 기간은 평균 2년 이상이 못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이나 정

권은 물론 국제정치에 있어서까지도 사랑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평화조약이라는 법 조문만 가지고는 온전한 결과를 기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양심,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정신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데 법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법은 결코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누르고 자신의 야욕을 정당화시키는 데 이용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법이 우리의 양심과 정신적 자유를 억압한다고 할 때 여기서 그 사회의 권력 구조는 부패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조리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나는 악령을 내쫓는 것이 선교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써 양심의 자유로써, 이 세상 안에 있는 불신,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사랑을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랑으로써 두니움을 이기신 사건이며 복음으로써 율법을 완성한 사건입니다. 이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생활, 새 인간이 가능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배어 마시고 그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화평 그리고 주의 명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앉은 우리들은 이 신앙을 고백하는 한 권속들

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와 두려움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사랑과 화평, 정의와 자비, 신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일하고 사랑의 빛을 착실하게 갚아 가야겠습니다. 아마 이 빛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다 갚지 못할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힘이 부족할 때, 우리가 지쳐버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시고 대신 자신의 죽음을 대속으로써 이 빛을 갚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주는 화평이요, 감사의 생활인 것입니다. (1976. 4. 25 한빛교회)